

2-4

가공포장 식품의 영양표시 현황 및 표시양식에 따른 소비자의 이해도와 선호도 자순옥*,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표시(Nutrition labeling, NL)의 제도화는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올바른 식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 방편으로 또 식품산업체의 상품 개발에 영양적 측면의 개발 향상을 촉진하는 활성화책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규제하에 고시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들은 특수영양 식품, 건강보조식품 및 강화 등의 영양소 함량에 관련 강조표시를 하는 식품에 한정되어 있으나 NL를 제도화 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국민건강 증진법의 시행으로 국민영양 상태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이의 실시를 촉진할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판 가공식품의 NL 현황을 조사하고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NL양식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중년주부를 대상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양식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정보취득력과 정보의 식생활 적응력을 test하여 그 결과를 분석했다. NL 현황은 강조표시인 '무, 저, 급원, 풍부' 등은 정량적 자료가 결여되어 있으며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미량원소의 효용성이 과대강조되는 경향이였다. Ca, Vit.C, 섬유소 등은 강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주의가 요구되며 100g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강조표시 규정은 표준 1인 분량을 공식적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규정함이 좋겠다. 또 NL양식의 통일된 규격이 없어 상품 간의 비교나 식생활에서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며 NL의 신뢰도가 확보 될 수 없으므로 공식화 될 양식의 개발이 요청된다. 소비자의 NL에 대한 반응조사의 대상자는 대졸이상 전업주부가 75% 이상으로 중상류 계층으로 잠정적 NL이용자로 여겨지며 영양권장량에 대한 지식정도는 선행 보고들의 주부보다 높은 편이나 수량적 인지에서는 제한점이 보였다. 개발된 NL양식 A,B,C,D는 NL 제자(Title), 자료제시단위, RDA %표시, RDA제시, 영양소 나열순서 및 세분화에서 차별화 시킨 것으로 현 우리나라 유통 식품에 흔히 나타나는 유형과 미국의 새 NL을 포함하고 있다. 인지도 점수는 RDA % 표시형이 가장 높고($P<.05$) 그 다음이 절대 수치형이었으며 적응력 점수에서는 RDA % 표시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정보취득력과 적응력 점수의 총점은 현재 많이 유통되는 양식(A형)이 다른 양식에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보이해의 신속성, 용이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가장 우선했다. 영양정보의 양이 가장 많고 절대수치와 RDA % 값이 동시에 제시되고 영양성분의 세분화가 된 미국의 새 NL은 점수와 선호도에서 A양식에 미치지 못했다.